

amagram

Success Partner for a Better Life

Enjoy the Change

Improve the power of your concentration 인생을 바꾸는 집중력 향상법

Lymphatic massage therapy 건강을 위한 셀프테라피, 림프마사지

Makeup like a Magic 단점을 커버하는 메이크업의 마법!

Special Theme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


THE YEAR OF
PRIDE

11 NOVEMBER / 2007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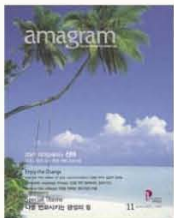


message		Balanced Businesses	05
beauty		D-day Focus Program	07
special theme		나를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	08

products guide

enjoy the change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두뇌의 힘, 집중력	14
		건강을 위한 셀프테라피, 림프마사지!	16
		E.FUNKHOUSER Collection 006	18
		단점을 커버하는 메이크업의 마법!	20
beauty		트리타지 1주년 기념 캠페인 수상자발표	22
		완벽한 피부, 그 이상의 아름다움	24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한 특별한 과정	25
wellness		뉴트리라이트 씨엘에이	26
nutrilite report		〈제1편 뉴트리라이트의 가능성〉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와 뉴트리라이트	28
		샘 렌보그 박사와 함께 한 제9회 문화일보 통일 마라톤대회	30
living		Fun & Fun(뽀뽀)한 요리 이야기, Fun & Fun 프로모션	31
		겨울 사랑 이야기	32
beauty		싸이토맥스와 함께 하는 맥스 프로그램	33

2007 AMAGRAM_No.190
N O V E M B E R



COVER STORY

열정을 다해 달려온 지난 한 해에 대한 보상,
2007 리더십 세미나 신아! 세미나 참가자들에
게는 설렘과 기대를, 참가하지 못하는 분들
에게는 목표를 다지는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
다. 따뜻하고 경이로운 신아에서 가족과 함께
남국의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business guide

the year of pride		① 암웨이, 미래를 변화시키는 가치	34
-------------------	--	---------------------	----



Steve Van Andel_Chairman
Doug DeVos_President

Balanced Businesses

균형잡힌 비즈니스가 바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충성도 높은 고객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판매와 고객 서비스에 대한 노력이 리크루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판매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판매, 고객 서비스와 리크루팅이 균형을 이룬 사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하게 유지됩니다.

사실, 열성적인 고객이야말로 최고의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우리 제품을 신뢰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비록 암웨이 사업기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신뢰를 주는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나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건강식품이든, 미용 식품이든 가정기구든 실질적으로 삶을 특별하게 만들어 줄 제품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암웨이 사업기회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일지라도 제품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데에 우선 공을 들이십시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애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그저 고객으로만 남고 싶어할 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제품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십시오. 제품에 대한 신뢰는 후일, 당신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업은 균형이 이루어져 그들이 저절로 당신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It's no secret that successful businesses rely on loyal customers. That's why we encourage you to focus your efforts on customer sales and service first, and then recruiting. Learning to sell is an important step. And building a balanced business will give you the kind of strong foundation that will keep your business growing and healthy for years to come.

In fact, loyal customers are our best prospects. They know and believe in our products. They have a strong understanding of who we are and what we stand for. Besides, people are always looking for products they can trust, even if they aren't necessarily looking for a business opportunity. They are actively looking for products that make a difference in their lives - whether it's for their health, beauty or products for their homes.

So, you shouldn't think that someone who's not interested in the business opportunity wouldn't be interested in our products. Take the time to help your "prospect" buy a product first. Because they may not be ready to talk about their future yet - they may just want to be your customer. Get them to trust our products. They'll grow to trust you in return. And they just may follow you as you build your balanced business.

스티브 밴 앤델 / 암웨이 회장

덕 디보스 / 암웨이·픽스타 총괄 사장



2007 AMAGRAM_No.190
N O V E M B E R

Contents

education advice	현명한 부모되기 가이드 ⑤고집 센 아이, 행동수정 클리닉	36
tax information	세테크의 눈을 키워라 ③연말정산,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제항목	38
rules of conduct	뉴트리라이트 제품 전달 시 유의점	86

news gathering

product news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에 관한 정보 소개	40
ibo plaza news	전국 각 IBO 프라자에서 진행된 이벤트와 다양한 소식들	43
amway news	암웨이의 생생한 최신 소식들	44

new achievements

interview	더블 다이아몬드/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수석 다이아몬드/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9월 1일부)	46
recognition	파운더스 에메랄드/에메랄드/파운더스 사파이어/사파이어/ 파운더스 플래티늄/루비/플래티늄/골드 프로듀서/실버 프로듀서 (9월 1일부)	55
schedule	11월 교육일정, ABC 일정표	87

IBO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마그램

아마그램에 대한 IBO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마그램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마그램을 본 후 느낀 소감 등을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접속 경로 : ABN→사이버북→아마그램 페이지의 '나의 의견 작성하기'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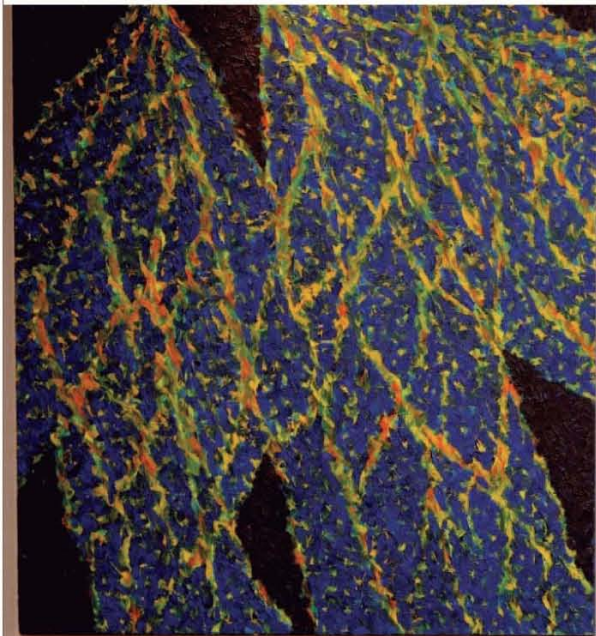
EDITORIAL 발행·편집인 CEO & Publisher 박세준 _ 편집책임 Managing Director 김일산 _ 편집 Editor-in-Chief 박혜영 _ Senior Editor 박혜원 _ 취재 News gathering (주)위컴에드 **ART & GRAPHIC** 디자인 Design (주)위컴에드 _ 사진 Photograph Bis Studio _ 일러스트 Ilust 임영택, 박원철, 심은경, 방인영 **STYLE** 스타일 Styling 심필영 **PRINT & OUTPUT** 사진재판 Scan & Photo Engraving 명성에드 _ 인쇄 Print 대원문화사, 대영인쇄사 _ 등록번호 서울 라-06179 _ 공급처 한국암웨이주식회사·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성유센터빌딩 (대표전화 : 1588-0080) _ 발행처 (주)위컴에드 _ 발행일 매월 25일 발행

※ 본 잡지에 실린 기사 및 일러스트, 사진에 대한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아마그램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잡지 살천요강을 준수합니다.

IBO 전용사이트 _ www.abnkorea.co.kr 퍼블릭사이트 _ www.amwaykorea.co.kr

한국직접판매협회
KOSA KOREA DIRECT SELLING ASSOCIATION
한국암웨이사는 한국직접판매협회의 회장사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뜻밖의 행운, 암웨이 사업

신혜현 | 더블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첫 인상만으로는 '이렇게 우아한 분이 어떤 힘으로 더블 다이아몬드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신혜현 더블 다이아몬드. 그러나 사업에 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과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지하고 열정적이었다. "지난 9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결실이라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수고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네요"라며 활짝 웃는 그는 사업을 일구며 온갖 희로 애락을 경험했을 텐데, 돌이켜 봐도 특별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스스로 신기해 한다.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나면 힘들었던 기억들은 잊어버리는 미래지향적인 성격 때문일까? 무엇보다 자신이 후원하는

여기 소리 없이 강한 사람이 있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여성 리더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 장소에 존재하는 모습만으로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며 암웨이 성공 신화를 은은하게 전파하는 사람. 모든 IBO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희망'이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 주고 있는 신혜현 더블 다이아몬드를 만나고 왔다.



이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는 신혜현 더블 다이아몬드. 그를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만든 저력은 바로 '꿈'이다. "꿈에도 두 가지 타입의 꿈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꿈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에게 쉽게 밝힐 수 없는 꿈이죠. 이 두 번째 꿈이 저에게 더블 다이아몬드 핀을 안겨 주었죠. 누구나 사업을 하면서 이런 꿈을 타인에게 함부로 알릴 수 없기에 더욱 간절할 테고요. 그렇기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꿈이 아닐까요?" 암웨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과 성향,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신혜현 더블 다이아몬드. 이것 역시 암웨이 사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최근 꿈이 돈이고, 돈이 꿈이라는 20대의 남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 사업 속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런 분들이 자신의 꿈을 설계하는 데 한몫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흐뭇했죠. 다른 사람들에게 나침반이 되어 주는 것이 제 사명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을 '대천명진인사'로 바꿔서 사용한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늘의 명이 따라오겠지만, 하늘의 도움부터 기대해선 안 된다는 것. "말은 일에 전력투구하다 보면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대천명'을 영어로 바꾸면 '세렌디피티(serendipity)' 정도가 되겠네요. 세렌디피티는 '우연히 발견한 행운'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많은 IBO들에게 이 세렌디피티가 많이 생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파트너들에게 다른 말 필요 없이 무조건 '그냥 하세요'라는 말을 하곤 한다. 또 힘든 과정을 거치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마음으로 전하고 싶단다. 이런 그가 추구하는 사업태도는 바로 불평, 불만, 비판이 없는 절대긍정의 세계.



Profile

Sign-up 1998. 09
Platinum 2000. 01
Sapphire 2000. 07
Emerald 2000. 08
Diamond 2000. 09
Executive Diamond 2002. 09
Double Diamond 2007. 09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지만 하늘의 덕을 기대하며 무언가를 시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뒤편이 뒤편이든 스스로 변화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불평과 불만을 떨쳐 버리고 부정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발전과 개선을 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됩니다." 그녀는 스폰서와 선배, 동료 사업자에게도 감사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더블 다이아몬드 핀을 성취할 수 있었다고. "죽을 때까지 암웨이 사업을 할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가 그랬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닐까 싶네요."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이들이라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혜현 더블 다이아몬드는 오늘도 자신과 함께 성공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있다.㉔





진정한 성공을 위한 변함없는 열정

홍성돈 & 조영순 |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기다림 끝에 찾아온 편입이었다. 수석 편을 달고 3년. 그전까지 매년 편입을 달성했던 성과에 비하면 '정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더딘 시간이었기에 감회도 더욱 새롭다. "지난 3년 간은 편을 유지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번 편입은 한 조의 다이아몬드가 탄생한 후 맞는 일이기 때문에 더 뜻깊습니다. 저희들의 성장은 곧 파트너들의 성장을 의미하니까요" 차분하게 소감을 밝히는 홍성돈 & 조영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의 모습은 성공이란 말보다는 성숙이란 말에 더 잘 어울릴 것 같았다. 스스로도 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 두 사람. 사업의 성장과 함께 행복한 미래와

꿈의 성취에 한발한발 다가서고 있는 파트너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리더가 된 후 느끼는 또 다른 사업의 기쁨이자 의미가 됐다. 암웨이 11년차, 녹록치 않은 경력에 꾸준히 편입을 달성해 온 두 사람의 경험담 속엔 현실적이고 알찬 사업 전략들이 녹아 있었다. "사업 초기의 열정을 잃지 않고 오래 유지하려면 현실변화에 맞는 사업전략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암웨이를 둘러싼 환경도 크게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는 방식보다는 파트너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할 수 있

사업의 규모가 커지고 리더들이 많아질수록 외형적 변화보다는 오히려 내적인 변화가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홍성돈 & 조영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암웨이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나가는 냉철함과 끈끈한 파트너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도록 배려해야 하죠. 더불어 각자의 요구와 목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주기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늘 변화하는 현실과 다양한 파트너들의 상황에 맞추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배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홍성돈 & 조영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일례로 두 사람이 주관하는 미팅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사수해야 하는 의무적인 모임이 아니다. 미팅이 있는 날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멋진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일이다. “파트너들과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미팅이죠. 그 자리엔 누구든 올 수 있고, 최고의 서비스와 함께 최고로 맛있는 요리를 선택할 권리가 주어집니다. 미팅하는 날은 파트너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갖는 날, 그래서 꼭 가고 싶은 날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파트너들에게 주문이나 요구를 하기보다는 베풀어 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하는 홍성돈 & 조영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무엇보다 두 사람은 지난 11년 동안 암웨이와 생활을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암웨이를 생활화하는 방식에서도 두 사람은 남달랐다. “암웨이는 우리 가족의 전부였고 희망이었기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이를 시댁에 보내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사업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지요.” 홍성돈 & 조영순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가 암웨이를 시작한 후 8년 동안, 직업이

Profile

Sign-up 1996. 10
Platinum 1997. 06
Sapphire 2000. 06
Emerald 2000. 06
Diamond 2002. 03
Executive Diamond 2004. 09
F.Executive Diamond 2007. 09

어려움이 찾아와도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희망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어려움 자체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 위치는 사업을 펼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무대가 되었고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 친구 부모와 사업적인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때문에 두 사람은 파트너들이 직장을 그만두려 하거나 아이를 맡기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암웨이를 위해 생활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생활 자체가 암웨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지난해 건강상의 문제로 위기를 맞았었던 홍성돈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는 암웨이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더욱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한다. “암웨이를 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했다면 아마 건강을 회복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어느 CEO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5가지로 일, 건강, 가족, 친구, 자아를 꼽았지요. 인생에서 이 소중한 다섯 가지를 지키게 해 주는 수단이 바로 암웨이가 아닐까요?” ㉓





꿈이 있는 인생은 아름다워!

정순희 & 박용환 | 수석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별써 9년 8개월 동안 암웨이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를 목표로 도전에만 매진했을 때는 타이틀을 성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주 컸는데, 막상 성취하고 나니 스폰서와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큼니다. 우리가 이룬 것은 순전히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니거든요. 특히 아무런 조건 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업 라인 리더들과 믿고 따라와주신 파트너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파트너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도전하는 리더로 남겠습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편을 성취한 소감에 답하는 정순희 &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의 목소리에 그간의 고생과 현재의 감

동이 자연스레 교차된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17번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중국 산아와 일본 삿포로, 북극, 스칸디나비아반도, 노르웨이와 스웨덴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10월에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를 2주 정도 다녀올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을 오로지 성공만을 꿈꾸며 달려온 결과입니다. 누구나 간절한 꿈이 있다면 이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는 이 모든 것이 꿈을 위해 달려온 자신들에게 암웨이가 내려준 커다란 상찬이라고 설

인간은 그 누구나 이미 태어날 때 특별하게 선택 받았기에 자기
 확신만 흔들리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정순희 &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 투자한 만큼 배움을 선물하
 는 인생에 있어 고난을 이겨낸 경험만 있다면 무엇이든 문제없
 다고 믿는 이들의 성공 철학에 귀 기울여 보자.



명한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항상 즐겁고 보람찼던 것만은 아
 니다.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는 2년 전 히말라야 트래킹을 하면서 바라
 본 눈 덮인 설산들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추위와 고산병, 막
 연한 두려움만을 생각한다면 고생한 기억으로 남았겠지만, 언제나 고고
 한 자태로 수천 수만 년을 이겨 온 설산은 그에게 도전과 자유를 생각하
 게 했다. “자유는 철저히 그 대가를 에누리 없이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
 습니다. 누구나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자신에 대해 확신이 부
 족하고, 성공을 위해 치르는 그 대가 또한 너무나 크게 느껴져 포기하고

싫기도 하죠. 저 역시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의 냉소로 제 확신에 의심을 품고 힘든 시기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해 특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도전할 대상이 있다는 그 자체로도 행복했습니다.” 오늘날 정순희 &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를 지금의 자리에 서게 만든 성공의 저력은 과연 무엇이였을까? 첫째는 단호한 결단력으로 내면의 부정
 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둘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자기 자신과 파트너들에게 심어 준 것이다. 셋째, 강한 인내심
 과 끈기를 잃지 않은 것이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
 고 끝까지 해낸다는 신념만 있으면 누구나 원하는 편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더라
 도 좌절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희 &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는 그 무엇보다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암웨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겪었던 온갖 어려움은 고난과 역경을 해결하고 기회를 잡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었기 때문이다. 실패라는 경험
 인생에 있어서 흠이 되느냐 성공의 열쇠가 되느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결정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암웨이 사업에 있어 모든 것을 함축하는 말이 아닐까?
 의지만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떠한 일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된다고. “꿈을 이루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그 꿈의 반은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내면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정순희 &
 박용환 수석 다이아몬드. 암웨이 사업자와 파트너들에게 밖으로 드러나는 수석 다이
 아몬드 핀 외에 인품이나 지식을 통한 내면적 가치까지 성장한 사업자로 일컬어지고
 싶다는 이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㉓



Profile

Sign-up 1997. 04
 Platinum 1998. 11
 Sapphire 2000. 03
 Emerald 2000. 03
 Diamond 2002. 03
 Founders Diamond 2002. 09
 Executive Diamond 2007. 09





자기 안의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지 11년이 되었다는 김은숙 & 김정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에게 핀의 성취는 또 다른 도전의 계기이자 변화의 구심점이었다. “사실 목표는 갖는 것보다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저희를 믿고 묵묵히 따라와 준 파트너들 덕분에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으며 이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신 안에 ‘자아 긍정의 힘’이 있다면 못 일을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은숙 & 김정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의 자아 긍정의 힘은 밝고 열정적인 에너지를 남들에게 전파하는 라이프스타일을 가져왔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신문을 읽으며 마인드 컨트롤에 관한 기사를 스크랩해 홈 미팅 시 파트너들에게 복사해서 나눠줘요. 저희 입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글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이 특별한 벽돌 같은 느낌이 들어 수퍼맨이나 수퍼우먼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로 말하면 명령이 될 수 있기에 신문의 힘을 빌리는 거지요. 저 같은 경우 거의 매일같이 IBO 프라자에 나와 하루 2~3건의 상담을 통해 파트너들과의 사업을 활성화합니다. 물론 방법이 아닌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지요.” 김은숙 & 김정호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성공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IBO들에게 오직 성실한 노력과 올바른 태도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고, 100을 얻으려면 100만곱 노력해야 하는 당연한 이치는 사업을 하며 깨달은 값진 교훈이다. 각자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따로 나누지 않고 서로에게 완전한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점도 암웨이 사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막연하게 돈을 벌고 싶어서 시작했던 암웨이 사업은 이제 이들에게 어느덧 생활 속 일부분이 되어가면서 매 순간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다. ③

김은숙 & 김정호 |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더 큰 성장을 위해 초심으로 시작합니다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진행해 온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께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이아몬드 성취 이후 제법 오래 뜸 들이는 시간을 보낸 후에 달성한 편입이라 감회가 남다를 법도 하련만 도성혜 & 길명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편안하고 여유있는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오래 뜸 들인 만큼 내실 있게 다져진 사업기반을 토대로 앞으로 더 큰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만큼은 어느 초심자 못지않게 강했다. “돌이켜 보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일과 크고 작은 개인적인 시련들을 이겨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암웨이 사업은 우리에게 언제나 희망을 주었고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지요.” 두 사람은 암웨이에 대한 변치 않은

사람은 뿌린 만큼 거두는 법이다. 암웨이 사업 역시 꾸준히 정직하게 노력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게 된다.

열정과 꾸준함을 사업 성공의 가장 큰 열쇠로 꼽았다. 과도한 욕심보다는 생활처럼 꾸준히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 먼 곳에서 방법을 찾을 필요 없이 파트너들과 미팅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두 사람은 말한다. “항상 파트너들 스스로의 능력과 열정으로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정해 주고 도움을 주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리더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간의 시간이 사업의 기초를 닦는 과정이었다면 앞으로 30~40년 간은 훌륭한 리더로서 파트너들의 성공과 꿈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는 도성혜 & 길명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성공을 위해서는 사업의 주인이 되어 열정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①

도성혜 & 길명환 |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이미자 & 한동현 |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2007년 9월 1일부)



성실한 자세로 신뢰를 쌓으면 성공은 이뤄집니다

“부족한 저희를 믿고 이끌어주신 스폰서와 성공을 향해 함께 걸어온 파트너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들의 성장이 곧 파트너들의 성장이기에 도전하는 리더, 성장하는 리더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8년 전,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들에게 암웨이 제품의 환경 친화적 요소는 사업을 전개하는 데 큰 비전으로 다가왔고, 8년이 지나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된 지금, 오랜 시간을 동고동락 해온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한 것만큼 의미 있는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번 목표를 도전하며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함께 달려온 파트너의 아이가 너무 많이 아파 같이 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병원에 있지만 병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의 모

‘바위를 뚫는 낙숫물’ 처럼 간절히 원하고 반드시 해낸다는 의지만 있다면 성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습에 같은 부모 입장에서 깊이 감동 받았습니다. 아이의 건강이 빨리 쾌유되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이미자 & 한동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것은 신뢰성 깊은 인간관계와 성실이다. 암웨이 사업은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에 인간관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자신만의 원칙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자 & 한동현 파운더스 다이아몬드는 암웨이 사업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원하는 성공을 파트너들과 함께 이룰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인정과 보상이 지금껏 함께해 온 파트너들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큰 열정과 팀워크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한다. ㉓

※ 2007년 9월 1일부 다이아몬드 인터뷰는 12월호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New Achievements

FOUNDERS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김정임 제주 제주시 / 한국암웨이 IBO

언젠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한 핀이었지만 성취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이 사온 후, 제주도에서 쓰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찾았던 곳에서 암웨이 사업의 전망을 들었던 순간이 생 각합니다. '당연히 성공할 수 밖에 없겠구나'란 생각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사업자로서 숭선수범하려 애쓰는 과정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신 스폰서분들께 감사 드리며 모든 파트너분들에게 열심히 해보자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번 성취가 세 아이 들에게 모범과 자극이 되어 가족 모두가 더욱 열심히 살았으면 합니다.



김혜영 & 채중부 부산 서구 /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다이아몬드로 가는 중간역에서 잠시 기쁜 여정을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암웨이 제품을 7년 동안 사용하던 소비자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남편을 보며 유통의 미래를 알게 되었고, 특별한 대안이 없어 헤매고 있던 중 친구의 권유로 암웨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망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완벽하게 이끌 어 주시는 업라인 스폰서님과 목표를 향해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들에 대해 사랑과 감사를 드 립니다. 그리고 늘 믿고 지지해 주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채만 & 김정숙 대구 달서구 / 인테리어 & 주부

가족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올해에는 가족여행을 통해 더욱 뜻깊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새로운 핀을 성취하고 보니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기분 좋기도 하고 요. 그러나 핀 성취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며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 라고 스스로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생각하며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과 함 께 할 수 있어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형제 같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기에 더욱 고마움을 느낀니 다. 오늘 내일보다는 한 달, 일 년, 십 년 후에 더 발전하는 사업자로 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경 & 김경옥 경기 구리시 / 한국암웨이 IBO

암웨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난 성격과 오 랫동안 길들여 온 습관을 버리고 스스로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 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제 꿈도 이루었습 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으신 친정어머님을 해외여행 보내드리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얼마 전 이루게 되 었거든요. 핀 성취를 이룬 지금,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좀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고요. 언제나 옆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준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고, 스폰서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 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FOUNDERS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서미옥 & 김구석 울산 남구 / 한국암웨이 IBO & 건축가

열정적으로 암웨이 사업을 하는 친구를 옆에서 보고, 저 역시 무한한 비전을 보게 되어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지만 IMF 때 불안정한 수입과 미래의 한계를 느낄 무렵, 암웨이의 경제적 자유라는 비전은 제게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름길을 찾기 보다 원칙에 충신했던 것이 성공의 밑바탕이라 생각하며, 잠시 주춤하더라도 그것은 외적인 성장에 앞서 내적인 성장이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 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이 사업의 진가를 알게 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석은영 서울 양천구 / 한국암웨이 IBO

든든한 파트너들과 함께 이룬 핀이라 생각합니다. 겸손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의 자세로 사업해야겠다는 생각이 한층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지금 제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처럼 이 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성실함을 인정해주고, 평생 같이 할 파트너들이 있어 참 행복하네요.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파트너분들, 특히 든든히 이끌어주신 스폰서님께 너무 고맙습니다.

신수진 & 박재현 경기 광주시 / 교육업 & 회사원

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핀 성취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성취를 목표로 달려온 지난 1년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목표를 향한 의지와 늘 이끌어주시는 스폰서님, 그리고 지금껏 함께해 주신 파트너 사장님들과의 팀웍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사업의 비전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더 열심히 노력해 마침내는 일등석을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나누어주며 살고 싶습니다.



엄대현 & 유미정 부산 사하구 / 한국암웨이 IBO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사업을 알려 주신 스폰서 그리고 저와 함께 사업하는 파트너분들이 이 핀을 이루신 거라는 말부터 하고 싶습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성취하면서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이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님과의 신뢰 어린 상담이 제 사업진행에 있어 가장 큰 비결이 되었던 것 같네요. 먼저 스폰서이신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팀웍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파트너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트너분들과 함께 더욱 성공하고 싶습니다.



**오영아 & 박동진** 서울 서초구 /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많은 파트너분들이 지향하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을 성취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사소한 교통사고 후 최소한의 생계비용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연히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자유는 자연히 따라움을 느끼고 난 후,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전도사로서 주위 분들의 행복을 행겨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점점 꿈이 커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의 안정성에 이끌려 시작한 암웨이 사업이지만 든든한 성공자로서 지표가 되어준 스폰서 분들과 모두 한마음으로 성공을 빌어준 파트너분들이 아니었다면 이 성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은진** 부산 부산진구 / 한국암웨이 IBO

아기가 태어날 때 그 경이로운 과정을 지켜 보며 도와 주던 간호사와 같은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핀을 성취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퇴직한 후의 계획을 알아보던 중 친언니의 도움으로 암웨이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남매가 모두 암웨이 사업을 통해 성공하게 되었고 나이 드신 어머님께도 기쁨을 안겨드리게 되어 자식으로서 참 흐뭇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과 달리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사업을 할 수 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제게 암웨이를 알려주신 스폰서이자 친 언니에게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이항희 & 이종구 경북 경주시 / 자영업

처음 저에게 '4년 동안 대학 공부하는 셈치고 해 보라'며 이 사업에 대한 책자를 주고 가신 스폰서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안하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제 꿈을 키우고 제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성공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성취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성취감은 물론, 그보다 값진 인간관계까지 선물해 주신 스폰서 분과 파트너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엄마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준 아이들과 남편에게도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임현선 & 한순복** 경기 남양주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가정주부로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보던 저는 예전에 한번 하다가 그만둔 암웨이 사업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한번 그만둔 뒤 다른 일을 아무리 찾아보았어도 이 사업이 계속 생각이 났고,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굳은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이뤄주자라는 저만의 원칙으로 선풍한 부자가 되겠다는 오랜 꿈을 이뤄내기 위해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늘 도와주시는 스폰서님들과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언제나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FOUNDERS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정은숙 & 박현열 경남 마산시 / 한국암웨이 IBO & 임대주택사업

암웨이 사업은 우리 모두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특히, 빛과 소금처럼 다른 이들의 꿈을 깨내어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사업의 원칙을 지키되 내 생각만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결심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오르고 나니 함께 해 주신 분들에 대해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더구나 파트너분들과 여행가는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기쁨은 공유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에게 쉬지 말고 함께 달려 보자는 말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주정현 & 윤경화 경기 용인시 / 한국암웨이 IBO

아이를 키우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 지루해질 무렵 암웨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의 짐도 좀 덜어 주고, 내 자신에 대한 투자도 한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는데, 편까지 성취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단시간에 이뤄낸다는 생각보다는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꾸준히 지켜간다는 생각으로 임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신 스폰서님과 함께 해주는 파트너들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큰 반대를 해서 오히려 제가 굳은 마음을 먹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 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강병소 & 주경자 부산 금정구 / 한국암웨이 IBO

사업설명을 한번 들은 후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는 생각에 시작한 사업이 커져서 에메랄드 핀을 달성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짐이 안될까' 걱정했는데 이젠 오히려 힘이 될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나이가 더 열심히 해서 주위 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네요. 암웨이 사업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기다렸던 시간들이 참 보람 있게 다가옵니다. 물론 꾸준한 미팅 참석을 통해 이 사업의 가치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전달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어떤 조건하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께 정말 감사 드립니다.



**길현애 & 정상화** 경기 의정부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새기며 내 자신의 역량을 키우려 노력해 온 과정이 생각납니다. 맨 처음 스폰서님이 가져다 주신 자료를 보고 성공에 대한 비전을 보고 잠을 설치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인격과 경제력, 영향력을 고루 갖춘 리더가 되기 위해 매달 스스로의 목표를 정하고, 바른 원칙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보람이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저를 깨워 여기까지 이끌고 와 주신 스폰서님과 엄마를 위해 제 몫을 너무나 잘해 준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경수 & 박순임** 경남 진해시 / 회사원 & 한국암웨이 IBO

지인으로부터 우연히 소개받고 부업 삼아 시작한 것이 이제는 더 큰 꿈을 향한 날개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분들처럼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가족들은 물론 파트너들과 함께 꿈을 성취해 나가고 싶은 소망이 더 커졌습니다. 다이아몬드 핀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이번 핀 성취는 '한 단계를 넘어섰구나'라는 의미로 다가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이 굳어집니다. 묵묵히 한 길을 걸으며 앞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 주신 스폰서님이 너무 고맙고 그로 인한 암웨이 사업의 성공이 가족간의 우애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보여 주신 파트너분들께도 큰 감사 드립니다.

김광도 경남 양산시 / 한국암웨이 IBO

이 사업을 통해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며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인정 받고 살기를 바랍니다. 건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고객을 섬기며 팀워크를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거듭나는 리더의 자세로 배움을 멈추지 말자고 다짐하며 제 안의 무한한 잠재력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힘들수록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으로 전진한다면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지금껏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파이팅하겠습니다.

**김미화 & 김상철** 대구 남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보다 큰 나를 만들고 숙성시키는 과정을 겪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노후를 보장받고,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얻는 보람과 감사함으로 저의 하루가 바뀌어 가고 있음을 느낄 무렵, 성공은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미팅에 참석하고 스폰서님의 가르침에 따른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켰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에게 어떤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게 큰 힘이 되어 주는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 김효민 경기 성남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이 입원한 후 저는 인생에는 언제나 비상사태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마침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의심 없이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이 많은 저의 장점만을 봐주시고 격려해주신 스폰서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성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저는 오늘도 암웨이를 통해 특별한 꿈을 꾸니다. 큰아들의 수술비용을 충당하고 부도로 넘긴 집을 되찾는 것. 멀게 느껴지는 이 꿈도 암웨이와 함께라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항상 후원해 주시는 시어머니와 기특한 두 아들, 남편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김윤미 & 최용석 대전 중구 / 치과의사

암웨이 사업을 시작한지 만 3년.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에게서는 겨우 석 달쯤 지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재미있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후 얻은 최고의 가치는 무료로 생존만을 위해 살던 나날들이, 살아 숨 쉬는 활력의 날들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스폰서들과 파트너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가족 간의 진정한 사랑과 신뢰도 새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에메랄드를 지냈을 뿐, 목표를 향해 또 전진하겠습니다.

김은영 서울 강서구 / 한국암웨이 IBO

암웨이를 시작할 때 가졌던 첫 번째 꿈은 '원할 때 직장에서 은퇴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지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든 적도 있었지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행한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이겠지요. 끝끝내 목표를 달성한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원래 제품이 좋아 혼자 구매해서 쓰는 소비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사랑하다 보니 오히려 사업을 쉽게 느낄 수 있었어요. 좋은 느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요. 사업을 알려 주신 스폰서, 사업의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업라인, 팀워크를 이루어준 파트너사장님들, 늘 격려해주는 가족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대구 남구 / 한국암웨이 IBO

스폰서님과 파트너분들에 대한 감사함이 가장 앞섭니다.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던 예전의 모습이 낯설 만큼, 지금의 만족스러운 현실에 감사합니다. 단순히 늘어 가는 수입뿐 만이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가치와 인정이 높아져 가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암웨이 사업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연수가 높아 질수록 더 자리가 든든해지고 인정받게 되는 체계라 너무 마음에 들고요. 미팅에 반드시 참석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스폰서님과 늘 상담했기에 오늘날 이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꿈의 사업인 암웨이 사업,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면 반드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노희겸 & 이연자 전북 전주시 / 자영업 & 회사원

지인의 소개로 처음 암웨이를 접한 뒤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꿈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칸트의 말대로라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에메랄드 핀 정도 성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처음의 소박한 꿈이 이제는 더욱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켜 보고 싶다는 꿈으로 커졌습니다. 파트너들 간의 믿음과 팀웍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스폰서님께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들 긍정적 마인드를 지니고서 제게 친절해보다 가까운 마음을 보여 주신 파트너들이말로 오늘의 성공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운순 & 연규훈 대전 동구 /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힘들 때마다 '大志者 不棄望' (큰 뜻을 품은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한 저만의 힘이었지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이겨 내는 사람만이 꿈도 희망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프리카의 한 여학생을 돕고 있는데, 우리 세 딸과 함께 만나러 가고 싶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고 싶고, 암웨이 사업은 그런 제 꿈에 더욱 큰 힘이 되어 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감사를 알고 사랑을 알게 되어 갑니다. 스폰서님들의 큰 사랑 받아 제가 성장했듯이, 더 많은 분들과 그 뜻을 이어받아 나누며 살겠습니다.

박은진 & 강진윤 서울 서초구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처음엔 나만의 여유 수입을 갖고 싶다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어 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게 되었죠. 지금 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며 사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과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해 내는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도전을 선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너무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을 느꼈기에 힘이 납니다.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앞서 끌어 주시는 스폰서님과 부족하지만 함께 해준 파트너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정연 & 이상옥 경기 고양시 / 한국암웨이 IBO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암웨이 사업과 관련된 강좌를 듣는 동안 문화센터를 다니듯 즐겁게 이것저것 배웠습니다. 그러다 노력만 있다면 안정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안정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에 대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를 포용할 줄 아는 마음과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운 뒤 저의 주변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제 변화가 아이들의 변화로 이어지는 걸 느낄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너무 좋은 우리 파트너분들, 스폰서님을 덕분에 이룬 에메랄드 핀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MERALD



2007년 9월 1일부



오은영 충남 천안시 / 한국암웨이 IBO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마땅한 것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암웨이를 만나게 되었고 암웨이에서 제 꿈을 이뤄줄 비전을 본 후 주저없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가 비울 때 오히려 내 그릇의 크기는 커진다는 역설적인 진리였습니다. 더불어 감사하는 법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고향의 부모님처럼 가슴 한 쪽을 따뜻하게 하는 스폰서님, 그리고 친구같은 때론 비즈니스 파트너 같은 남편, 또 하나의 가족으로 와닿는 파트너분들과 이 감사와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윤희본 & 안영재 서울 강동구 / 개인사업 & 한국암웨이 IBO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다는 걸 알았을 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되어서도 전 세계의 암웨이 가족들에게 동기 부여 강연을 하고 싶은 제 꿈을 생각해보면 이제부터가 이 사업의 진정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의 원칙은 스폰서와 파트너에 대한 신뢰, 회사에 대한 신뢰, 제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나가는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어 주었던 스폰서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저를 믿고 발을 내딛은 파트너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희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IBO

처음 암웨이를 시작했을 때 희망과 감사로 가득했던 제 자신을 기억하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행복해야 제 가족들도 온전히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만난 후로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점점 인생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제 꿈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꿈도 그렇게 이룰 수 있게 도와 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제 꿈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옥선 & 이성호 울산 남구 /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친구권유로 우연히 마케팅 설명회에 참석한 것이 암웨이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암웨이 사업의 비전을 보며 나름의 원칙을 세워 시작했습니다. 소비자와의 신뢰, 파트너와의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 그리고 미팅에 반드시 참석한다는 원칙을 곳곳이 지켰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아이들에게 해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약속도 곧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핀 성취는 제 목표의 시작일 뿐이니 앞으로 멈추지 않고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든 가족들과 스폰서, 파트너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장윤희 & 신동준** 충남 천안시 /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에메랄드 핀을 성취했다는 걸 알았을 때 모두가 함께 일군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핀을 성취하기까지 제 의지와 희망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스폰서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 믿음을 굳건히 키울 수 있었구요. '감사'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다면 스폰서님께 꼭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성공으로 보답하고 싶고, 믿고 따라와 준 나의 파트너들에게 너무나 자랑한다고 꼭 함께 하자고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정효심 & 이광진** 광주 서구 / 한국암웨이 IBO

이번 에메랄드 핀 성취를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함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일구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지금 이 참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스폰서님들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고 저희의 부족함을 알기에 더욱 열심히 책과 테이프, 미팅을 접하려 했기에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웨이 사업을 통해 제 삶의 철학을 감히 배웠다고 말할 수 있고요, 끈끈한 사랑의 힘이 되어 주신 스폰서님께 감사 드리고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삶의 자유와 기회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최화연 & 이규상 충북 청주시 / 한국암웨이 IBO & 벤처기업운영

직장을 다니다 한계를 느껴 다른 일을 알아보던 중, 주위분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목표는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 여행을 다니며 즐기는 삶이었고, 암웨이는 그런 저희에게 하나의 비전을 보여 주었습니다. 더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암웨이였기에 더욱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어 앞서 길을 가주시는 스폰서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원칙 안에서 정확히 진행하시던 모습이 저희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스폰서님께 감사 드리고 다함께 힘이 되어준 파트너분들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RECOGNITION

FOUNDERS SAPPHIRE



2007년 9월 1일부



강석희 & 추성중
경남 통영시
한국암웨이 BO & 보형업



강혜숙 & 함장모
경남 김해시
어린이집 운영 & 회사원



고은숙 & 이주림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권정미 & 정경호
울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나은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BO



김인욱 & 이문수
전북 전주시
학원강사 & 회가



김정희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김종관 & 강결숙
전북 군산시
한국암웨이 BO



김희선 & 김석균
서울 송파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승희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박희진 & 이재범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서문숙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BO



서미자 & 김광민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신단순 & 안덕문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우동렬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이명숙 & 정명주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이명애
서울 은평구
한국암웨이 BO



이현숙
광주 북구
한국암웨이 BO



이화숙 & 신동순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장은진 & 유병수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FOUNDERS SAPPHIRE



2007년 9월 1일부



전경숙 & 김운교
경남 진해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정윤희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황난혜
부산 사상구
영재교육원교사



황혜정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FOUNDERS SAPPHIRE

김미진 대구 동구 / 한국암웨이 BO
차미자 & 전진환 부산 시하구 /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SAPPHIRE



2007년 9월 1일부



김용임 & 정복만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김정남 & 진우영
강원 동해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정현
대전 대덕구
한국암웨이 BO



문영주 & 박은옥
경기 안양시
연구원 & 한국암웨이 BO



손혜경 & 최우영
울산 중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유윤희
서울 중구
한국암웨이 BO



전정애 & 윤상일
경남 진해시
한국암웨이 BO & 치과기공

SAPPHIRE

이윤영 & 공우영 경기 용인시 / 한국암웨이 BO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터



강경숙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강경아 & 이재우
서울 송파구
한국암웨이 BO & 국제사업



강성애
서울 영등포구
한국암웨이 BO



강순금 & 김한중
부산 수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강승희 & 구본익
대구 동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강은희 & 구본식
인천 연수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강지연 & 이종현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강혜숙 & 강종용
제주 제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강희기 & 김미연
충북 청주시
건축업 & 자영업



고귀덕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BO



고미옥 & 윤종선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고자현
대구 수성구
한국암웨이 BO



고희탁 & 홍미경
부산 연제구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구수현 & 박지환
경남 양산시
한국암웨이 BO & 자동차 정비사



구영희
울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권노선
충남 계룡시
한국암웨이 BO



권상원
대구 동구
회사원



권오향 & 김한규
서울 관악구
한국암웨이 BO & 방송인



권은경 & 우경태
부산 금정구
한국암웨이 BO & 한의사



권은정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권정숙
울산 울주군
요가원



권진희 & 조윤신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경단 & 김홍재
부산 사하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동진 & 이문수
대구 북구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김경심 & 유용하
전북 진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경연 & 방용석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경화 & 최현욱
경기 광주시
회사원



김구자 & 류재진
서울 김서구
한국암웨이 BO & 건축업



김대선
광주 북구
영아사업



김동철 & 박은주
강원 원주시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김명희
부산 동래구
한국암웨이 BO



김미라 & 권혁준
강원 동해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복희
서울 중랑구
한국암웨이 BO



김상겸 & 배수진
대전 대덕구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김상희 & 권동주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상희 & 송은주
서울 광진구
회사원 & 디자이너



김선영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김선자 & 정연욱
경기 안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선희 & 이재필
충남 천안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성기 & 안재선
경남 창원시
미술학원 운영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김수영 & 최종진
서울 동대문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소아
경기 파주시
한국암웨이 BO



김소옥 & 이명실
경남 통영시
한국암웨이 BO



김명미
경기 안산시
부동산중개업



김명아
경기 화성시
한국암웨이 BO



김명애
경북 포항시
한국암웨이 BO



김영주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김영준
강원 춘천시
한국암웨이 BO



김옥선 & 이경석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유정 & 장경호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윤희 & 오종섭
서울 강남구
회사원 & 자영업



김은숙 & 박종욱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인숙 & 오명균
서울 양천구
회사원



김일수 & 박영순
부산 북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김임선 & 유정용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재성
대구 북구
자영업



김경문
서울 서초구
자영업



김경미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김정숙 & 편도성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재아
부산 부산진구
한국암웨이 BO



김정애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김정은 & 박동수
서울 마포구
화랑큐레이터 & 자영업



김주영 & 고영범
제주 제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주영 & 강미성
경기 남양주시
인테리어 & 한국암웨이 BO



김지영 & 양성민
서울 도봉구
자영업 & 회사원



김지훈 & 이성경
경남 마산시
자영업 & 치위생사



김재영 & 강화석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재애 & 김기남
충북 청원군
어린이집 운영 & 한국암웨이 BO



김현재 & 조종덕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여행사



김현정 & 배진수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형욱 & 정창호
인천 남동구
간호사 & 건축업



김예은 & 김현종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 IT컨설팅



김종임 & 강현규
경기 용인시
의상실 & 회사원



김화자 & 이종근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김호식
서울 중구
광고디자인회사경영



김화자 & 이상규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김희정 & 한규민
서울 영등포구
한국암웨이 BO



나미애
광주 광산구
한국암웨이 BO



남시범
서울 송파구
자영업



노금미
전북 진주시
보험설계사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문보영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민옥연 & 성정환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민윤진 & 임일용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 여행업



민지현 & 이승도
서울 강동구
한국암웨이 BO & IT사업



박경희 & 김종진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내희 & 정현기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명애 & 현웅태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무연 & 이준자
서울 송파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박미선 & 황의민
광주 북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보영
서울 마포구
음악강사



박선자 & 이주엽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선희 & 박경한
서울 마포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선희
대전 유성구
프리랜서



박성숙 & 고궁성
경기 성남시
전 조산사 & 공연중개사



박수미 & 이창일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숙현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BO



박명숙
서울 중랑구
한국암웨이 BO



박명희 & 이성오
경기 시흥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명희 & 최한식
울산 중구
한국암웨이 BO & 학원운영



박명경 & 이광재
부산 동래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은경 & 김완주
부산 부산진구
한국암웨이 BO & 치기공사



박은영 & 김태경
충남 당진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은영 & 김현규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 유통업



박정미 & 신인수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박지현 & 남상철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박창영
대전 중구
한국암웨이 BO



박철우 & 김계화
대구 동구
전문직 & 한국암웨이 BO



박현수
부산 서구
한국암웨이 BO



박현진
인천 부평구
한국암웨이 BO



방중하
서울 미포구
한국암웨이 BO



방현주 & 임다규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학원운영



배윤진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BO



배은덕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배은주 & 허동일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백순자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변복신
경기 포천시
한국암웨이 BO



서지은 & 안규산
서울 중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서정숙 & 박호성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서현이 & 황귀훈
경남 거제시
한국암웨이 BO & 운수업



설민주 & 송재훈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성수경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손복자
서울 강남구
한국암웨이 BO



손은섭 & 성민후
경북 구미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손경애 & 최승한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손형숙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송매자 & 조성지
제주 제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송상미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송경미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BO



송진숙 & 박형진
충남 개령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신공주 & 김명욱
광주 광산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신누리
부산 동구
의류직



신소경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BO



신진연
서울 마포구
레크레이션 인스트럭터



심영섭 & 한상복
경북 포항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심은연 & 박준혁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안동일 & 현하
강원 원주시
자영업



안미연
부산 연제구
방문교사



안사라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안수진 & 김성수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안경민 & 박한근
부산 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안혜선 & 양재우
광주 광산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안혜영 & 조현철
대구 중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안화진
경남 마산시
장사



양경면 & 신은자
광주 서구
자영업



양성호 & 김섬미
경기 광명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양유나 & 이광준
경기 하남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양종암 & 권오선
경북 안동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오유미 & 김명훈
서울 광진구
한국암웨이 BO & 의사



오세원 & 이홍구
서울 양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우민주 & 최성산
서울 성북구
한국암웨이 BO & 학원장사



원미선 & 김현수
대구 달서군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유경화 & 이배국
경기 남양주시
한국암웨이 BO & 운수업



유광종 & 윤은주
서울 영등포구
수확장사 & 한국암웨이 BO



유선수 & 안경자
서울 양천구
프리랜서 & 개인사업



유성예 & 정해익
인천 서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유영란 & 오탔웅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유영예 & 민순기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유영희 & 이재철
서울 송파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유은미 & 오동일
경기 화성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유재란 & 이호신
경남 함안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유경예
경기 의정부시
한국암웨이 BO



유지은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BO



유현정 & 정윤희
경기 성남시
방송작가 & 회사원



윤미애 & 신동석
울산 중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윤상반 & 박천규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윤진욱 & 박소현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윤호중 & 최은정
경기 군포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윤 회 & 백망수
서울 마포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이경택 & 이말순
서울 광진구
자영업 & 전문직



이규숙 & 강익동
부산 동래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이기숙 & 김가수
경기 고양시
한국암웨이 BO



이동재 & 강숙영
인천 계양구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이동훈 & 박주희
대구 동구
회사원



이명숙 & 문귀석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이미경
충남 아산시
한국암웨이 BO



이미란 & 안의택
충남 천안시
한국암웨이 BO & 시행사업



이미순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미영 & 강영도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미밀 & 강용수
경남 진주시
전문직 & 자영업



이미정 & 강용욱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이미희 & 김철주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만숙 & 김학수
서울 성동구
회사원



이복희 & 손두현
서울 금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상보 & 강형희
경기 화성시
교육사업 & 프리랜서



이상원 & 윤판호
충남 공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선밀 & 조한규
서울 영등포구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이선희
서울 양천구
한국암웨이 BO



이순현 & 강성곤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 전문직



이시은 & 전영기
인천 부평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안순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이영미 & 김길봉
부산 부산진구
자영업



이영미 & 이호택
경기 이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연신 & 한병준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영자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이윤미 & 김동환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이우간 & 이병철
충남 예산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현희 & 정윤석
경기 군포시
한국암웨이 BO & 전문직



이은경 & 정승재
광주 북구
한국암웨이 BO



이은아 & 장상구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은영 & 최상길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이은순 & 이두희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이안규 & 남미정
부산 해운대구
회사원 & 연구원



이안숙
경기 광명시
자영업



이인순 & 오영식
충남 공주시
한국암웨이 IBO



이일신
강원 춘천시
한국암웨이 IBO



이재억 & 백미예
경남 창원시
회사원 & 한국암웨이 IBO



이정화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IBO



이종식
부산 사상구
한국암웨이 IBO



이종직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IBO



이지우
인천 연수구
한국암웨이 IBO



이진숙 & 김형환
충남 아산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현수 & 배영예
부산 서구
공인중개사 & 한국암웨이 IBO



이현주 & 김현일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현주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IBO



이혜경 & 엽가하
경기 화성시
종이집기 강사 & 회사원



이혜경 & 조남권
서울 성북구
한국암웨이 IBO & 자영업



이혜주 & 김태환
경기 파주시
한국암웨이 IBO & 회사원



이혜숙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IBO



이혜영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IBO



임경자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IBO



임복순 & 장낙성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건축업



임순단
경북 포항시
한국암웨이 BO



임정원 & 이상명
경기 성남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임혜숙 & 윤상진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임현자 & 조중현
부산 북구
중국어 강사 & 자영업



장경복
부산 금정구
전문직



장미란 & 최병상
서울 중랑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장수영 & 강말임
경남 김해시
회사원



장인자 & 전국진
경기 남양주시
과외 & 수학강사



장해수 & 표자성
인천 계양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전선희
인천 서구
한국암웨이 BO



장병욱
부산 수영구
한국암웨이 BO



정경희 & 이지형
강원 원주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정광욱 & 공석봉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정복희 & 김대성
전북 군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정수욱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정수희
부산 사상구
한국암웨이 BO



정은미
경남 마산시
한국암웨이 BO



정은주 & 조영길
인천 부평구
자영업



정은진
광주 서구
한국암웨이 BO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장익환 & 윤경애
경북 영천시
자영업



정진천 & 이예순
전북 익산시
자영업 & 회사원



정진천 & 조영훈
서울 관악구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제정자 & 이명복
경남 마산시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조규주 & 하병봉
서울 성동구
한국알웨이 IBO



조미경
경기 용인시
한국알웨이 IBO



조미숙 & 김철민
경남 창원시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조미숙 & 양병술
대전 서구
독서실운영



조미연 & 황진수
경기 남양주시
한국알웨이 IBO & 프리랜서



조선희 & 이상영
부산 해운대구
회사원 & 스포츠센터 출판리운영



조순교 & 아규선
서울 송파구
자영업 & 한국알웨이 IBO



조상순
서울 성동구
한국알웨이 IBO



조영미 & 김완수
경기 용인시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조영미 & 박태복
부산 남구
전문직



조인희 & 김철훈
경기 안성시
한국알웨이 IBO & 자영업



조지연 & 최승훈
부산 서하구
한국알웨이 IBO



조지환 & 유안근
서울 용산구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조현희
충북 청주시
한국알웨이 IBO



주선미 & 윤영호
경기 용인시
독서지도사 & 회사원



채경진 & 이동화
경기 성남시
한국알웨이 IBO & 회사원



최성주
서울 서초구
한국암웨이 BO



최소은 & 윤재식
부산 동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최영신 & 김혜영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옥정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최정민
서울 강남구
한국암웨이 BO



최지희 & 김문환
울산 남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진애
경기 부천시
한국암웨이 BO



최태숙 & 김성태
경남 양산시
음악학원운영



최현주 & 강아구
전남 순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현주 & 황문선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후정 & 이호성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탁행림 & 장용립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탁호철 & 조경애
인천 서구
학원운영 & 한국암웨이 BO



표형열 & 홍선영
충남 당진군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하양숙
충남 서산시
자영업



하현선 & 이형근
대구 수성구
한국암웨이 BO & 건축업



한순기 & 김영주
경북 경주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한영자 & 박상준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한은정 & 신승주
경기 군포시
한국암웨이 BO



한정환 & 이대희
서울 마포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RECOGNITION

FOUNDERS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함근정 & 김도완
부산 동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함영미
경기 남양주시
한국암웨이 BO



허준연 & 김대식
경북 칠곡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허혜임 & 박영진
부산 동래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현춘원 & 김원배
부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현혜경
제주 제주시
간호사



현호순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홍다영 & 최태원
경기 양평군
미술강사 & 인테리어



홍현수
제주 서귀포시
자영업



황명희 & 박영대
울산 북구
한국암웨이 BO



황미숙 & 이상열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황순호 & 정탁길
부산 연제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황연미 & 방경돈
대구 북구
한국암웨이 BO & 건축업



황유진 & 전한재
부산 부산진구
자영업



황정애
서울 양천구
한국암웨이 BO



황종희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BO



황지순 & 신경호
대구 수성구
한국암웨이 BO & 전문직



황현주
서울 성북구
한국암웨이 BO



FOUNDERS PLATINUM

강계군 전북 전주시 / 한국암웨이 BO
 강희규 & 김민석 대전 서구 / 건강컨설팅
 권필익 & 김정원 서울 성동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김갑영 서울 강동구 / 한국암웨이 BO
 김동열 경남 창원시 / 자영업
 김상훈 부산 해운대구 / 한국암웨이 BO
 김석열 경남 합천군 / 자영업
 김승화 & 임승권 인천 부평구 / 자영업
 김영숙 광주 광안구 / 한국암웨이 BO
 김영숙 & 양강식 부산 북구 /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김원자 대전 중구 / 한국암웨이 BO
 김은영 대전 유성구 / 한국암웨이 BO
 김은정 전북 군산시 / 사채사업
 김영숙 경남 창원시 / 자영업
 김차열 부산 영도구 / 한국암웨이 BO
 김현경 & 김한수 대전 서구 / 회사원
 김혜란 & 박선목 서울 마포구 / 회사원
 김혜련 전북 군산시 / 한국암웨이 BO
 김홍연 서울 중구 / 한국암웨이 BO
 노정아 & 김유승 서울 노원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문난희 & 신삼옥 대전 대덕구 / 한국암웨이 BO & 건설업
 박경옥 서울 강동구 / 자영업
 박두훈 & 이춘지 경기 하남시 / 농업
 박정원 & 김경자 광주 서구 / 자영업
 박경숙 서울 영등포구 / 한국암웨이 BO
 백경자 경기 파주시 / 영어강사
 서송자 전남 순천시 / 한국암웨이 BO
 손정호 & 김영덕 부산 기장군 /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신모산 대전 서구 / 프로그래머
 심태근 경기 과천시 / 회사원
 안성수 서울 마포구 / 개인사업
 안영미 & 김대영 경기 군포시 /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오재인 서울 중구 / 자영업
 옥성자 & 윤기조 부산 동래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유지원 경기 부천시 / 한국암웨이 BO
 윤보영 서울 금천구 / 한국암웨이 BO
 윤준희 대구 북구 / 한국암웨이 BO
 이상례 서울 중구 / 디자이너

이성이 & 윤래근 울산 중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소레 전남 순천시 / 한국암웨이 BO
 이승재 서울 종로구 / 한국암웨이 BO
 이문선 & 박만숙 울산 중구 / 한국암웨이 BO & 병사선사
 이인철 & 최영숙 경남 합천군 / 한국암웨이 BO
 이종성 부산 북구 / 회사원
 이준영 서울 강북구 / 회사원
 이진나 & 김대원 경기 고양시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임태근 & 이은희 경기 남양주시 / 자영업
 임혜정 대전 중구 / 한국암웨이 BO
 장경단 & 오철식 서울 동대문구 / 자영업
 장학진 충북 영동군 / 자영업
 정경미 전남 나주시 / 프리랜서
 정다운 서울 중구 / 회사원
 정수정 & 고정희 경기 김포시 / 개인레슨 & 회사원
 정승열 경남 김해시 / 자영업
 조수도 대전 서구 / 우유대리점
 조수정 & 손창영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조월숙 & 김경국 경남 김해시 /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조은주 경남 김해시 / 회사원
 지원철 & 노미연 광주 광안구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진윤아 & 김재영 서울 성북구 / 동서통역사 & 회사원
 재화연 부산 중구 / 회사원
 최동순 & 유용철 경기 이천시 / 회사원
 최영진 & 신정익 부산 해운대구 / 학원원장 & 회사원
 최희란 충남 천안시 / 한국암웨이 BO
 최희숙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한규주 서울 동대문구 / 한국암웨이 BO
 한명숙 서울 마포구 / 회사원
 한수현 대전 중구 / 한국암웨이 BO
 허성주 경남 진해시 / 전문직
 허영숙 대구 수성구 / 한국암웨이 BO
 허현자 & 김성호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홍기경 서울 노원구 / 한국암웨이 BO
 홍임표 & 허진영 경기 용인시 / 회사원 & 한국암웨이 BO
 황영애 & 이병태 경남 창원시 /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RECOGNITION

RUBY



2007년 9월 1일부



신봉주 & 유택
대구 북구
자영업



신현정 & 김종식
경기 안양시
한국안웨이 BO & 회사원



오미정 & 최병준
대구 북구
자영업 & 한국안웨이 BO
2007년 8월 1일부



신정홍 & 이봉진
대구 북구
자영업
2007년 7월 1일부

RUBY

오혜연 & 박재영 서울 서대문구 / 회사원 & 자영업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



강다현
충북 청주시
회사원



고진복
경기 성남시
한국안웨이 BO



구지영 & 김순겸
대구 수성구
자영업



권남숙
부산 사상구
한국안웨이 BO



김길임
경기 평택시
한국안웨이 BO



김길임 & 양옥섭
광주 서구
한국안웨이 BO & 자영업



김미선 & 이형철
인천 서구
헬프강사 & 자영업



김민화 & 이재우
부산 금정구
한국안웨이 BO & 자영업



김보경 & 정재현
대구 수성구
한국안웨이 BO & 자영업



김복실 & 김길남
서울 성동구
자영업



김본선 & 임채만
부산 부산진구
한국안웨이 BO & 상업



김선희 & 전한노
인천 남구
한국안웨이 BO & 서비스업



김명자
대구 달서구
한국안웨이 BO



김명희 & 김문수
전남 목포시
자영업



김필수
대전 동구
한국안웨이 BO



김효선 & 고은모
서울 마포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노순란 & 김정균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노정순
대전 중구
한국암웨이 BO



노정숙 & 문병우
부산 해운대구
한국암웨이 BO & 학원강사



도희자 & 김종진
서울 중랑구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박규순 & 조기상
대전 서구
한국암웨이 BO & 금융업



박순분 & 문홍수
충남 천안시
자영업



박정은
울산 남구
전 미술강사



박정순 & 전혜수
경남 사천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백은숙 & 이희일
부산 금정구
요가단식원장



백재욱
경남 창원시
한국암웨이 BO



서미에
서울 강북구
요리강사



손경진
대전 중구
과외교사



손혜경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송선영 & 김현기
경기 안양시
전 영어강사 & 회사원



신명희 & 정승일
경기 평택시
한국암웨이 BO & 전도사



신순희 & 김동일
대전 대덕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오경희 & 고병수
충남 논산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오은실 & 이조연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유호선 & 박종필
한국암웨이 BO & 세무사



윤국복 & 채문영
충북 청주시
한국암웨이 BO & 방송업



윤 미 & 장계현
전북 남원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덕희
경기 성남시
교육업



이병국
인천 남동구
회사원



이숙자 & 심송용
충남 아산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윤경 & 홍성철
경기 용인시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이종어 & 백승일
경기 안양시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임귀영
경남 김해시
한국암웨이 BO



임규왕 & 천숙자
경북 경산시
회원 & 한국암웨이 BO



전옥단
광주 남구
한국암웨이 BO

RECOGNITION

PLATINUM



2007년 9월 1일부터



조창국
경남 진해시
한국암웨이 BO



조현연 & 강동준
경남 진주시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주상희
경남 진주시
아름아집 운영



천미예 & 이철근
경기 평택시
학원강사 & 회사원



최명예
울산 울주군
한국암웨이 BO



최복자 & 김정욱
서울 강서구
한국암웨이 BO



최현주 & 김보연
서울 광진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최세숙 & 김형태
인천 중구
한국암웨이 BO & 회사원



한정숙
경기 수원시
한국암웨이 BO



한경미
대전 유성구
한국암웨이 BO



홍지예 & 성윤수
대전 대덕구
한약사



황규정 & 김연숙
충남 서산시
회사원 & 피부관리사

PLATINUM

공건희 대전 동구 / 한국암웨이 BO
권해국 & 김상이 경남 마산시 / 운수업 & 한국암웨이 BO
김경희 경기 파주시 / 한국암웨이 BO
김근태 충남 계룡시 / 기계설비공사
김석용 대구 달서구 / 한국암웨이 BO
김성숙 광주 서구 / 간호사
김순천 & 김영현 경기 김포시 / 한국암웨이 BO
박성삼 & 이주복 서울 금천구 / 한국암웨이 BO
박용선 대전 유성구 / 한국암웨이 BO
신홍범 & 이지숙 대전 대덕구 / 유통업 & 한국암웨이 BO
안경희 부산 연제구 / 한국암웨이 BO
양정화 인천 부평구 / 자영업
여현정 & 김태환 울산 울주군 /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오영주 서울 중랑구 / 자영업
이경진 경남 김해시 / 회사원
이가수 & 문영순 대전 동구 / 자영업 & 한국암웨이 BO
이덕규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이민수 서울 강남구 / 회사원
이수영 & 김인홍 경기 고양시 / 한국암웨이 BO & 개인사업
이윤숙 서울 도봉구 / 한국암웨이 BO
이유리 경기 부천시 / 한국암웨이 BO
이인숙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이인옥 경기 성남시 / 한국암웨이 BO
이혜연 대전 유성구 / 자영업
이호숙 서울 구로구 / 한국암웨이 BO
임남희 & 박민우 서울 노원구 /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임미옥 경기 수원시 / 한국암웨이 BO
정아순 부산 연제구 / 한국암웨이 BO
정준기 경기 김포시 / 한국암웨이 BO
전신자 부산 수영구 / 자영업
전은숙 서울 강동구 / 한국암웨이 BO
조규선 서울 서초구 / 한국암웨이 BO
조성희 대전 서구 / 자영업
조영신 & 김두현 울산 남구 / 회사원
최보순 충남 천안시 / 한국암웨이 BO
하지윤 & 이영안 부산 부산진구 / 한국암웨이 BO & 자영업
한상연 & 하미향 대전 대덕구 / 자영업
홍성예 대전 서구 / 한국암웨이 BO
홍창순 부산 사상구 / 한국암웨이 BO

2007년 8월 1일부터
최상옥 서울 동작구 / 보험업
최준석 & 김보혜 서울 동대문구 / 개인사업

GOLD PRODUCER



2007년 9월 1일부터

권은경 & 박영일	김병진	나은주	박애란	양경태 & 박대식	이경은 & 민봉기	전경미	허윤희	2007년 7월 1일부터
김경숙 & 김용근	김옥순	남광우	박준애	유미숙	이용남	정은숙	황연희	김순희
김관선	김유정 & 이지상	문지숙 & 최민호	박지현	윤선민	이재희 & 허창욱	조명자		
김미섭 & 조삼현	김은향 & 국인진	박노주 & 허정숙	손정태	윤옥란	임상애	조춘옥		
김민정	김인양	박동식 & 정윤희	손향실 & 이영희	이경숙	장복금 & 김용구	최성호		

SILVER PRODUCER



2007년 9월 1일부터

강 명	김마경	김진희 & 이종학	박정희 & 표남병	손영아	유영미 & 현재오	이현애 & 김동현	조용선	홍혜선
강복자	김연수	김치일	박종국	안영선	이두루	정미숙 & 강영수	조준희 & 임영주	황인구
강승정	김연희	남상운	박종현	안현수	이미영 & 이재규	정재욱	진재현	황재호 & 정태환
강영선	김영옥 & 권재만	류종완 & 유은정	방수미	엄서익	이소정 & 이상직	전식대 & 구 숙	최경애 & 김창섭	
강인엽	김옥남	문호섭 & 박원희	복진원	여명숙 & 정 옥	이순점	전영희	최진경	
곽지현 & 안종태	김은주	박갑주	서호근	오희진	이왕걸	정이자 & 강권석	최희재	
권은혜	김종선	박선옥	서홍열 & 김민정	우미숙	이재광	정종균 & 송경미	한명숙	
김구술	김지영	박승민	손민지 & 임성경	우성녀	이재춘	정지희 & 정관섭	한연호	
김문희	김진민	박영애	손성환	유경순 & 권오상	이지현	조 민	한인조 & 김동태	

※ 레코그나션에 실릴 사진은 우편(서울시 강남구 대치 3동 944-31 섬유센터빌딩 8층 한국암웨이 아마크렘 담당자 오후) 이메일(amagram@amwaykorea.co.kr)을 통해 접수합니다.